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0601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가)~(다)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1116

(가)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뜻있는 선비는 살아남고자 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다.
 (나) 진인(真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착한 일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행하여 형벌을 가까이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 전생(前生)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가):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 ② (나): 인의(仁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③ (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④ (가), (나):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 ⑤ (나), (다):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405

(가) 도(道)는 자연(自然)을 본받아 어긋나지 않는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를 몸 에 두고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스스로 자라나는 법이며 간섭할 필요가 없다.
 (나)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인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다.

- ① (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② (가): 성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③ (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충서(忠恕)를 실천해야 한다.
- ④ (나): 무욕(無欲)과 무지(無知)의 삶을 통해 인을 실현해야 한다.
- ⑤ (가), (나): 성인은 도덕과 예의(禮義)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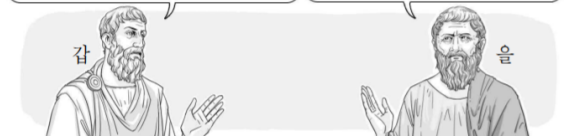
4.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1107

갑: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5.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002

죽음은 감각이 상실되는 것으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모두와 상관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게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① 갑: 죽음의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큰 악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
- ④ 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 ⑤ 갑, 을: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세를 대비해야 한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갑: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 양만을 중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곧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사람이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의욕하지 않는다.

- ① 갑: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의 원리는 없다.
- ② 갑: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행위는 항상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③ 을: 개인의 주관적 준칙은 어떤 경우에도 보편화될 수 없다.
- ④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가 산출할 유용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
- ⑤ 갑, 을: 인간이 느끼는 모든 쾌락에는 어떠한 질적 차이도 없다.

7.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904(윤사)

○ 싸움이 끝나도 긍지를 갖거나 잘난 척하려 하지 말고, 교만 하지도 말라. 싸움이 끝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
 ○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오가지 않는다.

- ① 도덕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든다.
- ② 백성은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통치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 ④ 현자(賢者)를 높이 지 않아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위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8.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11(윤사)

○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9. 갑 사상가에게 을 사상가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규 문항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균형이 쾌락 쪽에 있다면, 그것은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짐승에게 해당되는 쾌락이 인간의 행복 개념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 ① 공동체가 단순한 개인의 합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 따라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들의 종류가 하나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④ 행위의 도덕성 판단이 보편적 기준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행위가 유발할 쾌락의 양이 아니라 질만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10.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104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 ① 토론에서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